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묵상기도 다 같이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480장 주와 같이 길 가는것 다 같이

-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능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분

성경봉독 신명기 15:9-11 다 같이

-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말씀나눔 반드시 네 손을 펼지니라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이

축복과 비전나눔 다 같이

※집안 어른들께서 지난 은혜를 되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한가위입니다. 연어가 모천(母川)으로 회귀하듯이, 복잡한 도로를 뚫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뿌리인 고향을 찾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고향에 이르러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게 되기에, 한가위는 음식도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해지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계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해당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명심하여 지켜야 할 말씀을 모세는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향하여 어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는 전하기를, 가난한 이들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며,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7절).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되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8, 10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네 손을 펴라(8절)”고 한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심과 위로,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함께 모임으로 반갑게 만나며 기쁜 시간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전한다면, 우리가 맞이한 한가위는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되고, 더불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10절)”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 온 대지를 환히 비추는 한가위 달빛과 같이 우리도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허탄하고 허망한 욕망과 욕심이 씻겨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친지와 친구들, 이웃에게도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